수지지구촌교회 유치촌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019년부터 유치촌 교육목자로 부르심을 받아 6세, 7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저 또한 예수님 앞에서 어린이와 같은 심령으로 회복되는 시간을 주일마다 선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와 장난끼 넘치는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면 금방 체력은 방전되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목장 아이들 생각에 가슴 한 켠이 아련할 때도 많지만, 키도 믿음도 쑥쑥 자라나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저에게 코로나와 어수선한 교회 환경을 거치며 눈에 띄게 줄어드는 아이들의 빈자리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2019년 처음 교육목자로 부르심을 받고 초보 목자일 때, 제가 섬기는 수지 유치2마을 12시 예배는 1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전도사님, 목자님과 함께 시끌벅적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여러 상황을 거치면서 최근에는 절반 이하로 출석하는 아이들이 줄게 되었고, 제 마음 속에는 “계속 목자로 섬길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과 “다른 뛰어난 목자님들도 많으시니 이제 목자를 내려놓을까?”라는 나약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안정과 유치촌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방법을 고민하던 저희 수지 유치 2마을 공동체에게 선하신 하나님은 선명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전도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아이들을 찾고, 지구촌교회와 유치촌을 알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열매가 없을지라도 언젠가 찾아올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저희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6세, 7세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어디에서 많이 만날 수 있을지부터 고민했고, 어떤 첫인상으로 다가갈지 그리고 어떤 전도 물품이 관심을 끌지 목자님들의 활발한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키즈카페, 수지생태공원, 벼룩시장이라는 환상적인 장소 선정을 할 수 있었고, 솜사탕 선물이 아이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강력한 무기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복음 키링을 구상하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많은 목자님들의 고민과 헌신으로 하나하나 준비되는 과정을 보는 것도 너무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수지 유치 2마을 목자님들은 전도사님과 마을장님의 인도 하에 이번 9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전도를 진행하면서 많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당장 많은 아이들로 유치촌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전하며 누리는 기쁨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전능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제 마음은 평안함과 강인함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수지지구촌교회 유치촌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지구촌교회 유치촌이 많은 아이들로 부흥하는 그 날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수지 유치 2마을 공동체는 오늘도 기도하며 전도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격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